



눈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성명서] 보성군청의 부당한 안내건 차별을 강력히 규탄한다!

테마기획

시각장애인 안내견, 어디까지 출입이 가능할까요?

인 터 뷰

골볼의 미래를 주도합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실업팀 김진 감독

포커스

시각장애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떨까요?

목차	02	
점자로 말해요	03	● 쇼핑
시선집중	04	● [성명서] 보성군청의 부당한 안내건 차별을 강력히 규탄한다!
테마기획	06	● 시각장애인 안내건, 어디까지 출입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08	● 골볼의 미래를 주도합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남 · 여 골볼실업팀 김진 감독
포커스	10	● 시각장애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떨까요?
함께 사는 이야기	12	● 새해 인사와 다짐 이성희(시각 1급_서울특별시 용산구)
월드 리포트	13	● 시각장애인 카르멘 로페즈, 넘실대는 파도 위 서핑 즐겨 ● 저스틴 웨일링, 에드먼턴 병원에서 환자와 방문객 위한 피아노 연주 펼쳐
뉴스앨범	14	●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참세상강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국악 교실 3월 개강! ● 시각장애 아동들, 무용교실로 신체 활동을 즐겨요! ● 쇼다운으로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16	● 함께 여행을 가게 될 때

봄이 오면 가볍고 산뜻한 옷을 입기 위해 쇼핑을 하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쇼핑



인
기
검

자 음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표 ⠠	중 ⠠	원소리 ⠠
받 침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표 ⠠	중 ⠠	쓰받침 ⠠
모 음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					
	ㅐ ⠠	ㅒ ⠠	ㅖ ⠠	ㅘ ⠠	ㅙ ⠠	ㅚ ⠠	ㅜ ⠠	ㅠ ⠠	ㅝ ⠠	ㅞ ⠠	ㅟ ⠠	ㅠ ⠠	ㅡ ⠠	ㅢ ⠠	ㅣ ⠠
약 자	가 ⠠	나 ⠠	다 ⠠	마 ⠠	바 ⠠	사 ⠠	자 ⠠	카 ⠠	타 ⠠	파 ⠠	하 ⠠	억 ⠠	언 ⠠	얼 ⠠	연 ⠠
	열 ⠠	영 ⠠	옥 ⠠	온 ⠠	웅 ⠠	운 ⠠	울 ⠠	은 ⠠	을 ⠠	인 ⠠	것 ⠠				
약 어	그래서 ⠠		그러나 ⠠		그러면 ⠠		그러므로 ⠠		그런데 ⠠		그리고 ⠠		그리하여 ⠠		
숫 자	수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가운뎃점 (.) ⠠	말줄임표(...) ⠠				말줄임표(...) ⠠			소괄호() ⠠				대괄호[] ⠠	
영 어	영어식작 ⠠	끝 ⠠	대문자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아포스트로프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ㅆ, ㅊ, 다음에 약자 영 ㅅ, ㅈ, ㅊ 이 올때는 'ㅇ'으로 바뀐다.

[성명서]

보성군청의 부당한 안내견 차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17일, 시각장애인 1급인 김모씨는 보성군청에서 운영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갔다가 자신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무소에 있던 담당 공무원은 숙소 내 마룻바닥을 훼손시킬 수 있어 안내견만은 들어올 수 없다는 후진적 장애인식을 만천하에 보여준 만행이었으며, 평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수자를 어떤 시선으로 보아왔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의 역할을 하는 자원자이며 조력자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함께하는 친구이며, 동반자이다. 내 눈이 되어주고, 내 친구가 되어 주고, 내 길동무가 되어 주고, 나와 늘 함께 있는 나의 분신 같은 존재이다.

한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안내견의 양성과 활성화 여부로 가늠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안내견 차별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25년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IT 기술의 발달로 안내견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겠으나, 생명체로 연결되어 교감을 나누는 안내견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보성군청의 후진적인 안내견 차별에 큰 상처를 받았으며, 그 아픔은 이루 말로 표할 수 없을 만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시각장애인 1급인 김모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1월 17일 보성군청에서 운영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다 안내견 출입을 거부당했다. 김모 씨 가족은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서 1박 2일로 일정을 보낼 계획으로 예약하고, 지난 1월 17일(목) 3시경 체크인을 위해 사무소에 들렀다.

김모 씨 가족은 안내견 출입이 저지당할까 염려되어 방문 전 전화로 안내견을 동반해도 되냐고 물어 보았으며, 휴양림으로부터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나서 예약을 했다. 그런데 체크인과정에서 안내견은 숙소 내 마룻바닥에 훼손을 입힐 수 있고, 반려동물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안내견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은 해당 시각장애인은 가족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데 안내견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소가 되지 못해 틈새에 낀 동물 털로 인해 다음번에 동일 숙소를 이용할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안내견이 발톱으로 마루바닥을 훼손하는 등의 기물 파손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의 이유를 거론하면서 안내견 차별의 정당한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김모 씨에게 숙소에서 200 내지 300미터 거리에 떨어진 비닐하우스에 안내견을 홀로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성군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여 김모 씨 가족은 결국 환불을 받고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법에서 안내견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차별과 동일시하고 있다. 안내견에 대한 차별

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항 6호 및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3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의 심각한 법 질서 위반이라 할 수 있다.

보성군청 담당자는 이번 안내견 차별 사건은 법이 차별의 예외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법적 장애인인권감수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그 이유로 첫째, 안내견이 필요한지 여부는 숙박시설이 아닌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둘째, 동물털 알레르기나 안내견으로 인한 기물 파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은 대한민국 내 모든 숙박시설이 안내견을 반려동물과 다르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제암산자연휴양림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금지할 정당한 사유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지역 내 장애인차별을 감시하고 개도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보성군청에서 오히려 차별을 주도하고, 정당한 차별이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규정한다.

이에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번 보성군청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차별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보성군청은 안내견 차별 사건으로 상처 받았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는 물론,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둘째, 보성군청은 안내견 차별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인사조치하라!

셋째, 보성군청은 안내견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번 안내견 차별 사건과 관련하여 보성군청이 우리의 요구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연합회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9년 2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어디까지 출입이 가능할까요?

지난 2월, 한 시각장애인이 제암산 자연휴양림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과연 어디까지 출입이 가능할까요?

길을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안내하여 길을 걷고 있는 안내견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은 앞을 보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의 눈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자연휴양림 숙박업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안내견은 다른 애완동물처럼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는 걸까요?

안내견은 태어나면서 자원봉사자의 가정에서 사회화 교육과정인 퍼피워킹이라는 훈련 과정을 1년 동안 받게 됩니다. 이후 안내견 학교에서 6~8개월 동안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으며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준비를 하게 되지요. 훈련은 주로 장애물 피하기, 시각장애인과 걷는 방법, 배변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 안내견은 다른 개들과는 달리 사람을 보고 환영의 인사로 달려들거나 짖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배변을 하고 식사를 하는 등 규칙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안내견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때 시각장애인을 제대로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안내견을 비롯한 장애인보조견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행동을 보장받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출입하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장애인 복지법의 과태료 부분에는 '장애인 길잡이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안내견을 다른 애완견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견이 공공장소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안내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포용해야 합니다. 또 이외에도 정부차원에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위한 인식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어디든 출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골볼의 미래를 주도합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실업팀 김진 감독

시각장애인 스포츠인 골볼을 아시나요?

소리가 나는 공을 상대 팀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인데요.

전국 최초의 골볼 실업팀인 충청남도 골볼 실업팀의 김진 감독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골볼 실업팀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골볼 실업팀의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A. 선수단은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남자팀은 홍성욱, 김민우, 김승희, 홍준영 선수, 여자팀은 오덕윤, 김은지, 신숙자, 박민경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골볼 국내·외 대회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고, 특히 홍성욱 선수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거머쥔 이력이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충청남도 골볼 실업팀이 전국 최초로 창단된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창단 이전에는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었나요?

A. 실업팀 창단 전에는 골볼 선수들이 골볼에만 전념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운동선수들은 실업팀이 있어 직업의 개념으로 훈련을 하고 매진할 수 있지만 골볼의 경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국가대표 선발 합숙 시 합숙 일수에 맞추어 자신의 일을 빼고 집중 훈련을 하거나 대회 한 달 전쯤 상시훈련을 하는 등의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죠.

Q. 그렇다면 현재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A. 현재 저희 팀은 충남 아산에 숙소를 두고 있고, 아직 개관은 하지 않았지만 아산 장애인 체육센터 골볼장에서 오전, 오후로 커리큘럼을 나누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관 전이라 체육관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곧 운동 기구들이 들어오고 하면 웨이트 트레이닝도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Q. 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후원 등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A. 저희는 충청남도청의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실업팀이 창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제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골볼 실업팀 감독이 되셨나요?

A. 저는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을 전공했고, 당시 전공을 하면서 골볼이라는 스포츠를 처음 접했습니다. 졸업 후 골볼 국가대표 트레이너를 맡게 되면서 골볼 훈련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이후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에서도 골볼 국가대표 트레이너로 활동했고, 2017년까지는 경기도 소속 골볼 감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골볼과의 인연이 깊어지다 보니 이번 실업팀의 감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감독으로 부임하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Q. 혹시 올해 실업팀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올해는 3개의 골볼 주요대회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골볼 통합대회, 전국시각장애인 골볼 선수권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골볼 종목이 있는데요. 이 3개의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육성하고 국내 골볼 실업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에는 내년 도쿄패럴림픽의 골볼 종목 출전권이 걸린 랭킹대회가 있는데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여기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큰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국내 골볼 발전을 위해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A. 제가 골볼 트레이너 및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국내의 골볼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골볼과 관련된 대회가 적고 그렇다 보니 사회적 관심 역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많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니까요. 일본의 경우에는 골볼에 대한 기업 후원이 많이 이루어져 선수단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인프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애니메이션이 많이 발달한 일본은 유명 작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골볼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이번 저희 팀 창단 사례를 통해 앞으로 골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증폭되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바라본 세상은 어떨까요?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충무로에 위치한 충무창업큐브에서 시각장애인 사진전인 '마음으로 보다-心봤다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청년들이 만든 문화기획단인 천재지변에서 기획한 것으로, 최재현, 최민지, 김유정, 진수, 류승연, 황시정 6명의 청년들과 3명의 시각장애인 박예지, 선지원, 조원석 청년들이 모여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이 전시회의 모든 사진들은 시각장애인 청년들이 직접 찍었는데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의미 있는 일들이나 관심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선지원 작가의 경우, 자신이 후원하는 알조라는 아이의 집과 일상생활 풍경을 재연해 사진을 찍었으며, 조원석 작가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 온 안내건 평등이와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박예지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피아노에 대한 애정을 사진으로 드러냈는데요. 쪽 나열된 세 작가의 사진들이 각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전시장에는 세 시각장애인 사진작가들의 애장품도 준비되었는데요. 애장품을 손으로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평소 와인을 좋아하는 조원석 작가는 와인잔과 와인을, 마라톤이 취미인 선지원 작가는 운동복과 마라톤 메달을, 종이접기와 오카리나 연주가 취미인 박예지 작가는 오카리나와 종이접기 작품을 준비해 넣어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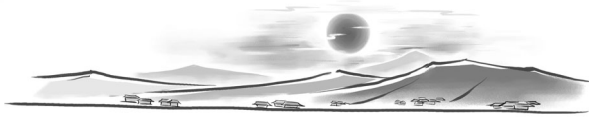
전시회 입구 정면 스크린에는 전시회를 준비하는 진행과정 등이 담긴 영상이 띄워져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들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화면해설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비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기기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기기들도 전시되었는데요. 확대경부터 웨어러블 안경까지 전시되어 있었으며, 스마트기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된 사진 밑에는 점자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진을 즐길 수 있도록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시선에서 찍은 사진으로 만든 전시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전시회가 앞으로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새해 인사와 다짐

이성희(시각 1급_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난 1월, 새 달력의 첫 장을 열었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열렸다. 의례적으로 지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눈다. 물론 모든 인사가 의례적인 성격을 갖는 것만은 아니지만 말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주고받는 새해 인사 내용대로만 된다면야 뭐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새해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한 해 동안 서로가 해야 할 숙제를 주고받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물론 악의로 내는 숙제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서로 만나 ‘잘했어요.’ 도장을 들고 확인할 일도 없다. 그래도 웬지 그런 좋은 내용의 인사를 받다 보면 ‘올해는 정말 잘살아 보고 싶다’는 다짐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다짐이 순간적인 것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의 떡국을 먹으면서 삶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낀다. 전에는 사회적 성공과 관련한 것들이 생각 앞머리에 자리 잡았다면, 점차로 마음의 평안과 같은 주관적인 것들이 어느새 생각의 앞자리를 하나둘 채운다.

며칠 전 기사 한 편을 읽었다. 제목은 ‘주는 기쁨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제목에 혹했다.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기사 내용은 이랬다. 주는 기쁨은 쾌락 적응(hedonic adaption)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쾌락 적응이란 특정한 경험을 통해 느끼는 기쁨은 그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 감소하게 되는 인간의 심리 기제를 뜻한다. 그런데 이런 쾌락 적응 법칙의 적용이 예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받는 행위가 아닌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96명의 대학생들에게 5일간 매일 5달러씩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돈을 매일 똑같은 데에 쓰도록 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든지, 다른 사람에게 팁을 주든지,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매일 자신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행복감이 어땠는지 돌아보고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실험의 결과는 5일 동안 자기 자신에게 쓴 학생들은 그 행복감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감소한 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쓴 학생들은 행복감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온라인으로 한 가지 실험을 더 했다. 502명의 참가자들에게 10라운드에 걸친 단어 퍼즐 게임을 하도록 했다. 각 라운드 게임이 끝나면 참가자들에게 5센트씩 지급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각 라운드가 끝나고 지급받은 돈을 자신이 갖거나 자신이 선택한 단체에 기부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이 실험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쓴 참가자들의 행복감이 돈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감보다 더디게 줄었다고 한다.

연구진은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과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의 차이로 해석했다. 돈을 받는 것이나 자신이 가진 것은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는 이전에 받은 양 내지 크기와 쉽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해당 경험이 반복될수록 행복감이 작아진다고 한다. 반면 기부와 같이 ‘주는 행위’는 각 행위 경험 간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쾌락 적응’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기사를 읽고 한 지인으로부터 받은 ‘올 한 해는 더욱 행복한 한 해를 보내’라는 새해 인사말이 떠올랐다. 그 인사말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올 한 해 어느 해보다 행복감을 좀 더 느끼면서 지낼 수 있을까 살짝 고민했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결과가 아닌 행위에 중점을 두며 살아가 보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매년 보는 동료라서 특별히 궁금할 것이 없겠지만 인사를 건네며 안부 묻기, 어쩌다 말이 이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가기 등 이왕이면 나 자신만을 위한 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베푸는 행위를 하면서 말이다.

시각장애인 카르멘 로페즈, 넘실대는 파도 위 서핑 즐겨



스페인의 21세 여성 시각장애인 카르멘 로페즈가 넘실대는 파도 위에서 자유자재로 파도타기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천성 녹내장으로 어려서 시력을 완전히 잃은 로페즈는 2024년 파리 장애인 올림픽 참가를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본능적 감각과 코치의 호루라기 횡수로 파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카르멘의 서핑 코치 루카스 가르시아는 “카르멘은 뛰어난 직관과 균형감각의 소유자이며, 함께 훈련하다 보면 실력이 금방 늘어 놀랍다”라고 말했는데요.

카르멘이 꼭 2024년 파리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스틴 웨일링, 에드먼턴 병원에서 환자와 방문객 위한 피아노 연주 펼쳐



캐나다의 시각장애인 저스틴 웨일링(Justin Whaling)은 일주일에 네 번씩 에드먼턴 병원에 방문해 환자와 방문객을 위한 피아노 연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인 저스틴은 할머니와 피아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귀로 음악을 익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은 2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병원의 환자들과 방문객들, 직원들은 저스틴의 피아노 연주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병원 자원봉사자인 짐 오닐(Jim O'Neill)은 저스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을 지켜보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저스틴의 연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NEWS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노원시각 장애인복지관-참세상강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의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 이 목적인데요, 협약을 계기로 북부교육지원청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와 복지관, 자립생활센터를 연계해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국악 교실 3월 개강!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작년에 이어 국악교실이 열립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국악교실은 시각장애인 10명이 북, 장구, 징, 팽과리 등으로 합주하는 사물놀이와 난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작년에 이어 한 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진행되는 국악교실에서는 난타의 장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실내에서 학습했던 국악 장단을 전문가의 합주를 통해 다시 한 번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체험 국악 공연 관람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국악 교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시각장애 아동들, 무용교실로 신체 활동을 즐겨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아동 무용교실이 열립니다. 시각장애 아동 5명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실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무용을 통해 시각장애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강화하고 균형감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을 듣고 아이들이 느낀 느낌을 몸과 사물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펼칠 상상의 나라가 기대됩니다.



쇼다운으로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3월부터 11월까지(7~8월 방학) 쇼다운 교실이 진행됩니다.

쇼다운은 두 명의 선수가 진행하는 스포츠로 직사각형 테이블 양 끝의 골 포켓에 소리가 들리는 볼을 상대방의 골대로 골인시키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쇼다운 교실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쇼다운의 활성화를 위해 선수 육성 및 다양한 대회 참여까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쇼다운 교실을 계기로 쇼다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사랑받는 스포츠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함께 여행을 가게 될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견학을 가게 될 때, 또는 나들이 길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정경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함께 산에 간다고 하면 산행도우미 역할뿐 아니라 ‘앞쪽으로는 봉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며, 무슨 꽃이 피었고...’하면서 산의 경치를 설명해주고 새로 돋은 나뭇잎과 꽃잎을 살짝 만져볼 수 있게 해주면, 시각장애인이 산행 하는데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붉게 물든 저녁노을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군요", "진달래가 새로 피었네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라든가 함께 자갈을 주워 돌탑을 쌓는 경험도 재미있겠죠.

또한 최근 주요관광지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여 관광도우미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 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 로 번 호 7608162

계 좌 번 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신한은행100-030-501953

예 금 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